

**“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워라.”**

1209

나는 그대에게서 강인하면서도 유순하고, 박력 있으면서도 부드럽고, 결단력 있으면서도 온유한 모습을 보았으면 합니다. 이는 견고한 덕행의 프로그램이며 성모님께서도 이렇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덕행들 중에 에너지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덕행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과 온유의 덕입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신비입니까!

우리 모두 이 온유한 겸손의 힘을 정복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겸손의 덕은,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시선을 끌어 들이는 고요한 호수가 되게하고, 교회의 모든 자녀들을 이끌어 들이는 항구가 되게해 줄 것입니다. 또한 그대 영혼이 하느님의 신성을 온통 반영하는 잔잔한 거울이 되게 해줄 것입니다.

1210

예수님, 저의 어린 나귀를 타시겠어요? 다른 것은 드릴 수가 없네요. 저는 작은 나귀예요, 하지만 당신께서 예수님이시기에 상관없어요.

1211

그대의 계획은 정말 단순합니다.

첫째 겸손

둘째 지극한 겸손

셋째 놀라운 도량의 겸손.

1212 그대의 삶이 사랑과 기쁨, 평화와 복음으로 가득 찬 하느님의 미소가 되고 그 미소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삶이 산상수훈의 요약하는 삶이 되고, 진복팔단의 선언이자, 평화와 온유와 선 자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의 눈은 언제나 하느님을 내어 주기를 바랍니다.

1213

하느님과 만나는 것은 그분의 온유를 체득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느님을 이해하였다면 그분의 평화와 선하심도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 선한 평화 속에 반영된, 하느님 존재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1214

그대 모험에서 한가지 기본적인 것을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선입니다. 갈바리오의 드라마는 선이 극치에 달한 드라마입니다.

1215

그대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태양이 빛나고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모두에게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형제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하느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1216

그대의 고요한 호수 속에 사랑의 무한한 보화가 간직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평화와 온유와 선으로 우리를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그대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을 때 마다 그 안에 간직된 영원하신 하느님의 은혜로운 현존을 느끼고 싶습니다

1217

온유와 선을 통해 우리 삶은 하느님의 차원을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보이지 않는 무한한 지평선에 까지 다다를 수 있게 됩니다.

1218

단순히 이론에 불과한 진리를 힘으로 관철시키려고 애쓰는 것보다 예수님의 겸손과 선으로, 예수님의 약함으로 약해 질 때 더 많은 설득력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고수하는 그 관념들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그대의 삶 속에 뿌리십시오. 그대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지고 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 주십시오.

1219

선하고 부드럽고, 하느님의 모든 계획에 자신을 순순히 내어 놓음으로써 일치에 이르게 되기를!

하느님과 자매들을 위해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모두가 그대를 먹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1220

하느님의 신비가 우리 안에 육화되기 까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더욱 더 진실히 사랑하고, 부드러워지고,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의 신비 속에서 더 많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또 그 증거를 충만히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분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온유와 사랑이 그대에게 전염 될지 누가 압니까!

1221

거부반응은 선으로, 반항심은 수용적인 태도로, 완고함은 감미롭고 부드러운 눈길로 극복하십시오. 이는 우리 삶의 자세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1222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더 많이 감싸주고,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더 많이 내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로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보다 더 위대합니다. 다행히 그분께서 우리의 노력들을 받아 들이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기에 완전한 균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 식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223

나는 그대가 싱싱한 로즈메리 나무 같은 사람이라면 좋겠습니다. 싱그러운 정원의 향기, 깨끗한 들 내음, 신선한 공기, 맑은 산소와도 같은 영혼이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바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대를 마음대로 들었다 놓았다 하며, 원하는 대로 다룰 수 있는 부드럽고 편한 로즈메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언제나 미소와 선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

모든 이에게 열려있고 관대하고 부드럽고 양선한 로즈메리! 자신을 생각지 않고 입술에는 미소를 머금고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며 모든 이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1224

모든 것이 쓸모 있고 모든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랑에 빠진

영혼에게는 쓸모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곁을 스쳐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가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밉니다. 그 손을 잡고 그 도움을 이용하십시오.

그대도 모든 이들이 달려가게 도와주는 따스한 손길이 되어 주십시오

1225

진리와 선을 그대 삶의 지표로 삼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삼으십시오.

하느님을 향해..., 언제나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대의 삶으로 하느님께로 가는 방향을 가리키십시오.

겸손과 비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충만한 진리를 끌어 안으십시오. 그 진리 안에서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대 인생을 살아가며 하느님에 대한 외침, 하느님 실존의 깊은 소식을 남겨놓으십시오. 그대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대를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요 생명이시며 존재 자체이신 분이시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은 초월자, 절대자, 무한하신 분..., 하느님은 하느님이시라는 진리를 언제나 선포하십시오.

1226

원활하고 단순한 삶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그 자체로 우리 인생 여정에 따르는 온갖 어려움과 고통에 대한 깊음이 되고도 남습니다.

1227

그대 사고방식을 더욱 부드럽고 진실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진리는 모든 것을 부드럽게 합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1228

“거룩한 도성 안에는 온통 하느님의 신성을 노래하는 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거친 행동이나 결코려운 말씨, 반항심 때문에 이 아름다움이 손상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생활 속에 강생한, 활력에 넘치는 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듣는 형제들로 하여금 하느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며, 사람들의 절친한 벗이라는 위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29

더 큰 사랑과 부드러움과 관대함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가끔 너무 엄격해 보입니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다른 이들에게 선해야 할 것입니다.

1230

우리 마음 속에서 이웃을 좋게 바라봅시다. 우리의 삶을 스쳐가는 이들을 우리 생각 안에서 좋은 사람들로 만듭시다. 예수님께서 성부 앞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듯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1231

더욱 선하게... 믿기지 않습니까? 오, 만일 이 성모님의 달, 5월이 선의 물결로 그대를 휩싸 버린다면! 그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선은 정서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면모 중의 하나입니다. 그대가 맺어야 할 열매들을 내어 주십시오. 선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1232

온유하시고 선하시고 기쁨에 넘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의 삶 속에 날로 더 뚜렷하고, 강렬하게, 더 큰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1233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워라.” 그리스도의 마음의 비밀은 너무도 깊숙이 들어있어, 그것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주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찾는 이들은 꼭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사랑과 담대함, 거룩한 용기에 달려있습니다.

1234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깊고도 신학적인 기쁨을 선포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기쁨의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온유와 선, 깊은 겸손과 부드러움으로 만들어진 수로가 있어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겸손의 깊숙한 수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삶 한 가운데를 지나시며 세상과 친교를 맺으시고 사랑 안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1235

겸손을 재촉하는 힘은 사랑과 믿음과 희망 안에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1236

그대에게 온유함이 부족합니다. 이는 겸손이 부족하다는 말이며 평화와 고요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폭력은 아무것도 전달해 주지 못합니다. 흥분한 영혼은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길바닥에 가득한 흙먼지와도 같습니다.

그대 내면 안에 평화화 고요를 유지해야 합니다.

1237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은 자신의 작음과 비참 앞에 크게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사십시오.

우리는 부족함이 많지만 모든 것이 잘 되어갈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찾아 드는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1238

겸손은 정복에 대한 열정을 싹트게 하고,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눈 덮인 산봉우리를 정복하도록 도와주는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거기서는 모든 것이 순결과 사랑과 진리일 뿐입니다.

1239

안으로도 밖으로도 온유. 빛나는 눈동자. 그러나 불꽃이 튀지 않는 온유한 눈길, 도움의 말을 해주고 차갑게 끊어버리지 않는 온유. 부드러운 굳셈, 분노를 가라앉히고 참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온유.

1240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나의 심연이 당신 존재의 심연을 부릅니다. 당신의 심연을 애타게 부르는 이 허무의 심연을 불쌍히 여기소서.

1241

충만하고 성숙하며 강하고 기쁨에 넘쳐있는 그대를 꿈꾸어 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리라는 희망을 그대에게 걸어봅니다.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부분은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께서 다 해주실 것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요!

1242

받아 들이십시오. 그대의 가난을 받아 들이십시오.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극한 사랑으로 일어나십시오. 부드럽고도 큰 열정으로 일어나십시오. 내가 일어나면 아빠가 미소 짓게 되리라는 것을 아는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그대의 열성으로 하느님과 모든 이들을 섬기게 되기를 아버지께서 큰 열정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넘어질 때마다 항상 일어나는 그대를 우리 모두 보고 싶습니다.

1243

겸손! 마니피캣 전체가 겸손의 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역사상 가장 절묘하고 아름다운 주제를 담은 노래가 되었습니다.

1244

그대가 겸손의 산을 용감하고 날쌔게 오르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차게 될 것입니다.

1245

겸손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을 손에 넣기까지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세상에 겸손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고 교만보다 더 역겨운 것도 없습니다.

성모님께 겸손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부탁 드리십시오.

1246

하느님께서서는 그보다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요구하십니다, 깊고도 견고하며 신학적인 겸손, 곧 하느님에 대한 인식과 자기 허무의 인식 위에 세워진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이 방면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1247

겸손 안으로 깊이 파고 드십시오. 그리고 겸손이 우리 봉헌 생활의 비결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토대 위에 우리 봉헌 생활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경축하고 있는 축제는 겸손의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천한 동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깊은 겸손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작아지고 낮아지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심으로써 침묵과 비하의 위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사랑에 빠진 숨은 삶으로 하느님의 눈을 즐겁게 해주십니다.

1248

그대의 작음도, 무능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며 그대의 작음 안에서 그분의 전능하심이 승리를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1249

아, 그 누군가 빈 틈 없는, 사랑에 빠진 마음을 봉헌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하느님이 안 계신 빈 자리를 볼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느님 앞에 그 빈자리는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깊은 겸손, 지극히 깊은 겸손이 요구됩니다. 하느님께서 깊은 겸손 안에 사랑의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1250

겸손과 견줄 수 있는 다스림은 또다시 없습니다. 교만은 왕관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1251

우리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힘도,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망라하는 충만한 비전도 갖고 있지 않으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재빠르게 정상을 정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비참함마저 제대로 알 수 없으니 우리가 지닌 한계는 너무도 크기만 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봉헌하며 기쁘게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한계가 우리를 성화시켜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단순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우리 한계 앞에 반항할 수도, 절망할 수도 없으며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한계를 뛰어 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한계는 하느님의 무한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채워주시리라 것을 믿을 때 해결됩니다.

나는 대양 속에 잠긴 한 방울의 물입니다. 그 작은 물방울이 자기를 포기 할 때 그 거대한 대양이 자신의 광대함으로 그를 위대하게 해줄

것입니다.

1252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해방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해방을 온유함을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온유함이 부족할 때 활기찬 생활 모습을 잃게 됩니다.

1253

어머니의 마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무능하고 무방비한 어린아이처럼 겸손을 동양하십시오.

어머니께 청하십시오. 우리의 말씨와 표정을 부드럽고 진실하게 해주는 겸손을 청하십시오. 기도에 항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좋게 해석하며,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겸손을 어머니께 청하십시오.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싸움 속에 있든지 고요 속에 있든지, 마음 쓰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1254

주님, 온유함을 주십시오. 겸손이 내적인 온유라 한다면, 온유는 외적인 겸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모님처럼 겸손의 극치를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유함이야말로 빛을 전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1255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하느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이처럼 탐낼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1256

내 삶의 목표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온유해 질수록 더 빠른 속도로 달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온유만이 사랑의 속도를 더해줍니다..

1257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산은 겸손으로 채워져 있을 때 만이 비로소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은 겸손 안에 높음의 비결이 있습니다.

1258

“당신 자신을 비우셨도다. (exinanivit semet ipsum. 필리피2,7)”
이토록 완전히 자신을 낮추신 그분 앞에서 어떻게 우리 권리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 유일한 차원을 우리 시야에서 잃지 않는다면, 무한히 낮추신 그 겸손 안에 우리 일치가 보장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직책도, 자리도 없습니다. 외형은 사라지고 유일한 실재, 본질만이 남게 됩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남게 됩니다.

1259

그저 말뿐이 아니라 영혼을 다해 마니피캣의 신비를 노래할 때, 하늘나라는 기뻐 용약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겸손의 기쁜 메아리가 천상의 복된 영혼들의 행복을 더해 줄 것입니다.

1260

내 가난한 삶의 목표는 천상의 비밀을 그대로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귀양살이 하는 나의 인생 여정은 천상 고향의 노래가 되고, 살아있는 “마니피캣”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261

순수한 사랑의 충만함으로 나의 "마니피캣"을 살아갈 때, 교회를 위한 구원의 보화요, 생명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을 위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의 "마니피캣"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은 모든 이를 위한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1262

모든 자리를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비워 주시도록 승낙하고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분명히 우리가 가장 자신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정복하신 곳은 감격스런 설교의 자리가 아니라 깊은 바다 에서였습니다.

바다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자신을 물고기와 파도의 지배자요 주인이라고 여기고 주님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스승께서는 베드로의 무능을 보여 주시면서 그에게 커다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루카5,8) 그는 비워졌습니다.

베드로는 존재이신 분의 심연을 감지하고 스스로 존재치 못하는 자신의 허무를 느꼈습니다.

하느님께서 베드로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당신의 신비를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신 분은 피와 살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제 베드로는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

넘어지겠지만 결국 사랑이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곧세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데 성공할 것입니다. 가련한 허무가 존재의 심연 속에 쉬게 되는 것, 이것이 베드로와 우리 모두가 나아갈 목표입니다.

1263

그대 서원 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무게 아래 쓰러져 땅에 엎드려 있던 그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대는 온통 꽃 비로 뒤덮여 있었지요. 그 날, 무겁게 떨어지던 그 꽃잎들의 무게는 그대 위에 쏟아지던 하나님 은총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렇게 사십시오. 결코 머리를 쳐들지 마십시오. 고랑에 떨어진 밀알이 머리를 쳐드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랑의 무게 아래 죽으십시오.

1264

베틀레헴의 신비에는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얇게 스케치한 그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대도 그 그림자들 중의 하나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거기, 아무 구석에나 자리잡고 앉아, 그저 사랑하고 조배하고 받아들이며 어머니의 품에 안겨 아드님과 함께 자라나십시오.

1265

아무리 자주 넘어져도 지치지 마십시오. 또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자신의 모습이 그대를 놀라게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이제, 그 단단함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단단함이 다이아몬드의

찬란한 광채와 가치와 아름다움을 지니게 하십시오.

1266

우리에게는 온유함이 부족하고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충만한 받아들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성덕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두 손에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아름다운 진주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1267

나의 비천함은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선과 전능하심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니 자신의 비천함과 가난함을 느끼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

우리의 가난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서 좀더 온유하고 선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필요한 이들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나누어 주시고, 또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는 더 특별한 방식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하느님의 신비스런 선하심의 한 몫을 얻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1268

“ 주님 저는 당신 앞에 짐승처럼 앉아 있었나이다” (시편72,22).

주님, 죄와 불충실, 상처투성이, 허무와 무능력, 이것이 바로 저입니다. 주님, 저의 허무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으로 저의 허무를 인정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싶을 따름입니다.

당신의 영원하신 뜻으로 저의 빈자리를 채워 주시고, 제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 손이 이루신 이 작품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1269

우리가 우리의 허무를 사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당신의 존재를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때 이기심이 떠나가고 사랑이 들어오며, 교만이 떠나가고 겸손이 들어오며, 내가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게 될 것입니다.

1270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마태오 21,3). 주님께서 원하신다니 행진을 시작합니다.

주님, 저의 이 비천하고 가난한 쪽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배에 타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미로운 그 무게에 감사 드립니다. 주님, 이 비천함으로 제 교만의 불을 꺼주시니 정말 감사 드립니다.

1271

하느님께서서는 불충실과 비참과 반항으로 상처 입은 우리 “허무” 앞에 혐오감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비참하고 가난한 영혼에게 끌리십니다. 그 영혼 안에서 당신의 위대하심을 펼쳐 보이시고 당신의 신비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악을 보는 것이 혐오스럽다고요? 안됩니다! 그게 아니라 좋으신 하느님을 보고 기뻐해야 합니다.

1272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외치고 계십니다. 그 외침이 그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갈망을 우리 안에 낳아 주었습니다. 그분에게 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께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허무의 심연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스스로 존재 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두운 영역, 우리 본래의 모습인 가난의 껍질에 둘러 싸인 우리의 허무를 철저히 음미한 다음에야 비로소 유일한 존재이신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1273

하느님 앞에, 그대는 허무이지만 그분은 그대의 모든 것 입니다. 그분의 힘 덕분에 그 무엇도 그대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말씀께서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성자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여기에 그대의 힘과 생명이 있습니다.

1274

하느님께서 나의 허무를 사랑하시며 그 허무를 당신으로 채워주시고 계심을 체험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또 영혼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인지요!

비우십시오, 오직 그 비움 안에 존재이신 분께서 계십니다.

1275

쉽게 행복하는 용사는 엉터리 용사입니다!

참된 용사라면, 빗발처럼 총알이 쏟아지는 전선의 맨 앞에 서서, 자신을 거슬러, 자신의 욕정을 거슬러, 자신의 악습을 거슬러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대에게 한 가지 말해도 될까요? 그대는 매우 열정적이지만 자신을 위해서만 그러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고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두려워하고 겸손을 추구하십시오. 알아들었습니까? 무엇보다 겸손!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대가 겸손하기를, 아주 겸손하기를 바라십니다. 왜 이 겸손의 목표를 향해 겨냥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겨냥하여 빛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1276

두려움은 성령의 일곱 가지 은사 중의 하나입니다. 이 탁월한 은사는 영혼으로 하여금 존재 자체이신 분의 바다에 잠기게 하고 자기 허무의 심연을 맛보게 합니다.

사랑하게 하고 동시에 전율케 합니다. 두려움은 지혜의 시초이며, 성덕으로 나아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될 힘이며, 성령께서 영혼 안에 이루시는 가장 아름다운 업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1277

선은 성령의 열매 중의 하나입니다. 그 범위가 넓고, 위대하며, 모든 이에게 다가옵니다.

자신의 유익을 찾지 않고 모두의 유익을 찾습니다. 이웃의 행복을 볼 때 진심으로 행복해하고 또 그 것을 얻기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선을 자신의 것으로 여깁니다.